논어 3편 팔일 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無所爭，必也射乎！揖讓而升，下而飮，其爭也君子。」

독음 · 자왈 군자무소쟁 필야사호 읍양이승 하이음 기쟁야군자

쉬운 풀이(요약) · 군자도 활쏘기에서는 겨루지만 서로 양보하며 올라가고 내려와 술을 마신다. 경쟁에도 예가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無 없을 무 무

所 바 소 소 / 爭 다툴 쟁 쟁 / 必 반드시 필 필 / 也 어조사 야

射 궁술 사 사 / 乎 어조사 호 / 揖 읍할 읍 읍 / 讓 사양할 양 양

而 말이을 이 / 升 되 승 승 / 下 아래 하 하 / 飮 마실 음 음

其 그 기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